

○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5.90원 상승한 1,116.70원에 마감
-------------	------------------------------

14일 환율은 전일대비 5.90원 상승한 1,116.7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5.50원 상승한 1,116.30원에 개장했다. 글로벌 달러화 강세에 갭업 출발한 환율은 대형 수주 소식에 상단이 제한되며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후 들어 장중 위안화 약세 등에 연동으로 1,118.10원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하였으나 네고 물량 유입에 소폭 하락하며 전일대비 5.90원 상승한 1,116.70원에 마감하였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1,017.95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116.30	1118.10	1114.70	1116.70	1116.4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011.90	1018.75	1011.90	1015.29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344.82	1354.70	1344.32	1353.32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14	-0.5	-0.35	-0.18
	결제환율(수입)	0.12	0.46	1.16	2.36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FOMC 대기 속 수급에 주목...1,110원대 후반 중심 등락 예상
--------------	--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0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116.70원) 대비 0.60원 상승한 1,117.25원에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미국채 금리 상승, 위험선호 둔화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은 6월 FOMC에서 금리 인상 시사 및 자산 매입 축소 논의 등 매파적 발언의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이에 10년 만기 미국채 금리가 4bp 이상 상승하며 1.45%대로 오르자 위험선호분위기가 다소 주춤하며 달러-원 환율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110원 하단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있는 수입업체 결제 물량 유입은 환율 상승 압력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반기말 네고 물량의 이른 유입 및 중공업 수주 경계는 상방 경직성을 제공하고 FOMC 대기모드에 변동성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114.50 ~ 1120.5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03.22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0.60원 ↑
	■ 美 다우지수 : 34393.75, -85.85p(-0.25%)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52.07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7876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